

## 특집

##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 경상권-도시 개발, 물류·문화관광 인프라 사업 등 '기대'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

**본** 고에서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경상권의 핵심 지역개발 사업을 1) 도시 개발 및 재생 부문, 2) 산업 및 경제 부문, 3) 교통 및 물류 부문, 4) 생활/복지 및 문화/관광 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 도시 개발 및 재생 부문

경북은 도청 이전 및 신도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10만명이 거주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비는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비롯해 상하수도 시설 등 신도시 기본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2단계는 2015~2020년까

지 주거 용지와 상업시설 등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3단계는 2021~2027년까지 대학과 레저 및 서비스 시설 등 도시 자족 기능을 확충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되고 2015년 상반기 이전이 완료되면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건축과 이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있다. 여기에 ICT 기반 융복합 신사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국비와 시비 3,5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조경제타운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청 건물을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들 수 있다. 낙후된 서부 지역 행정 서비스 제공과

1) 본 원고의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헌을 활용함.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 공약-시도 공약집, 새누리당 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 공약서.
- 심형석, "부산-사상 스마트 벨리 조성, 동남권 신공항 유치", 「CERIK저널」, 2014. 8, pp.29~30.
- 김창식, "창조도시 울산-산업기술박물관, 오일허브 사업 등 기대", 「CERIK저널」, 2014. 8, pp.32~33.

서부권 개발의 중추 기관으로 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경남도 서부청사는 2015년 하반기에 경남 진주에 들어서며 정무부지사가 상주할 계획이다.

부산은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은 도로 정비, 주차장 개설, 골목길 정비 및 각 지역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 등의 사업으로 기획되고 있다.

**산업 및 경제 부문**

경북의 관련 사업을 찾아보면 우선, 미래 창조산업벨트 구축 사업이 있다. 동해안의 경우 항만 물류·첨단 과학·에너지·원자력 등이며, 북부권은 바이오·백신·문화, 그리고 남부권은 자동차·항공 부품·군수 산업 클러스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어업 소득 프로젝트를 통해 연안 바다목장 설치,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걸림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안목장은 2017년까지 200억원을 들일 계획이고, 인공 어초와 탄소 흡수 바다 숲 등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산지 사업은 백두대간 순환 탐방 열차, 테라피 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경남은 항공산업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사천과 진주 등에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2018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항노화 산업단지, 그리고 합천군 삼가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 등의 사업도 계획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와 도심 노후 공단 재생,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수성 의료지구 조성 사업 등이 눈에 띈다. 이 중 2009년부터 진행 중인 첨단 의

료복합단지는 2038년까지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대구 혁신도시 내에 건설되는데, 총 4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3개 국책 기관과 48개 의료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향후 국책 기관 3개, 의료 기업 72개를 더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은 서부산권 개발이다. 서부산권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상 스마트밸리' 사업이다. 옛 사상공단 일원에 도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 주거 및 낙동강 권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2조원(국비 3,500억원, 시비 1,500억원, 나머지는 민간 자본) 규모이다.

울산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민자 등 3조 4,309억원을 투자해 울산 남항과 북항 일원에 석유 저장 기지를 갖추는 것으로 울산으로는 가장 절실한 국책사업이 되겠다. 이 사업은 국비와 민자 유치, 석유 거래 관련 금융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교통 및 물류 부문**

경북의 경우 남부권 신공항 및 울릉공항 신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과 강원 지역 경제와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동서 지역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국가 기간도로망인 동서5축 고속도로(보령~울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김천~거제)도 조기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경남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 건설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합천, 의령, 진주, 사천 등 낙후된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 특집 지역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경상권에서 추진되는 지역 핵심 사업

구분	광역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시 개발 및 재생	- 경북도청 이전 및 신도시 조성	- 서부청사 건립 및 공공기관 이전 - 마산 재생 프로젝트	- 경북도청 이전 부지 개발 - K2 공항 이전 - 균형 발전을 위한 부도심권 재생	- 북항 재개발 사업 - 노후 주거지 재생	-
산업 및 경제	- 미래청조 산업벨트 구축 - 어업소득 프로젝트 - 부자되는 농촌살린 신지 프로젝트	- 항공산업 국가산업 단지 지정 - 항노화산업 육성 - 산업단지 조성 및 특구 육성	- 울산업 클러스터 - 도심 노후 공간 재생 -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 수성 의료지구 조성	- 부산 금융 중심지 육성 사업 - 사상스마트밸리 조성 - 국제 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 방사선의료학 산업벨트 구축	-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사업 - 연구개발 특구 지정 - ICT 융합 조선산업 조성
교통 및 물류	- 남부권 신공항 및 울릉공항 건설 -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 남부내륙철도 건설	- 창원~현동 고속도로 확장 - 함양~울산 고속 도로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 서대구 KTX역사 건립 - 대구 도시철도1호, 3호선 신설, 연장 - 4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 및 연장	- 남해안 철도 고속화 - 가덕도 신공항 유치	- 울산외곽순환도로 - 울산항 진입 도로 개설
생활/복지 및 문화/관광	- 3대 문화권 개발	- 관광 자원 개발 - 남해안 국제 관광단지 조성	- 서민 주거 안정 - 국립 청사년수련관 유치 - 문화 시설 건립	- 환경개선사업 (낙동강, 동천 재생 등)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 국립 울산재활병원 건립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자료 : 새누리당 대선 공약과 지방 선거 공약집 등을 참조했음.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기 착공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가치치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외에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도 거론되고 있다.

대구는 출퇴근 시민을 위한 BRT(직통 광역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대구 KTX역~죽전역~상인역 구간을 신설하여 1호선 연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양~달성 국가 산업단지까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서편을 연장하고 동대구역~유통단지까지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범물~대구스타디움까지 3호선 도시철도 연장도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남대구IC와 회원IC 사이에 유천IC를 신설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광주 남해안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지역 화합과 함께 문화, 관광 및 물류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부산~순천 간 복선화 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고 순천~광주 구간도 조기에 착공하여 부산~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울산에서는 경부고속도로의 미호JC~천곡IC간 12.7km를 잇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과 울산의 분항과 신항을 잇는 울산항 진입 도로 개설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 생활/복지 및 문화/관광 부문

경북은 문화 및 관광 사업으로 3대 문화권 개발, 즉 1) 신라, 유교, 가야 문화 복원, 2) 신라 황궁, 황룡사 복원, 3) 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 등을 거론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남해안 국제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남해안 단지에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남해 힐링 아일랜드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부산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낙동강 생태계 복구 및 리버 프런트 조성 사업, 동천 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부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로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울산은 국립 울산 산재 재활병원의 건립(4,300억원)과 국립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사업(4,500억원)도 추진되고 있다. CERIK